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라피파 아눔 시레가르  
(인도네시아·2015년 수상자)

솜바스 솜폰  
(라오스·2015년 수상자)

7



인권변호사 라피파 아눔 시레가르(가운데 여성)가 인도네시아 분쟁지역인 웨스트파푸아의 한 마을회관에서 지역 인권단체인 파푸아민주연대(ALDP) 회원들과 분리독립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라피파 아눔 시레가르 제공>



라오스의 시민단체 '참여개발훈련센터'의 설립자 솜바스 솜폰(오른쪽 세번째)이 센터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옷 등을 팔고 있다. 사진은 솜폰이 지난 2012년 실종되기 직전의 모습. <수이 멩 제공>

## 광주 5월 정신 본받아 웨스트파푸아 독립 이끌 것

“5·18은 군부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뤄낸 민주화운동입니다. 웨스트파푸아 주민들도 5월 정신을 본받아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 18일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 라피파 아눔 시레가르(여·47·Latifah Anum Siregar)씨는 오월 정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5년간 광주시민은 물론 아시아에서 민주화 운동 역사의 한 획으로 평가받는 5·18이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에 주는 의미는 크다”며 “이번 광주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와의 연대를 지속해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는 인도네시아의 분쟁지역인 파푸아 서부지역(웨스트파푸아·West Papua)에서 파푸아 민주연대(ALDP·Alliance for Democracy in Papua)의

장교 파푸아지방의회 법문 및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국에서 웨스트파푸아의 분리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웨스트파푸아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일본 등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쪽의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와 분리됐다.  
웨스트파푸아는 지난 196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독립 찬반투표를 했으나 당국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후 이 지역에선 체포·고문·살인 등 인도네시아 당국의 분리독립을 방해하는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 “웨스트파푸아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이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저항의 의미를 담은 이 두 노래는 시민이 소통하고 하나로 결집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수백 명의 시민이 한목소리를 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고 광주 시민의 5·18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세력들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고 소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인권기구 임파살(Imparsial)과 연대해 성 차별 철폐 운동·파푸아 인권운동가 보호·파푸아 인권 침해사례 유엔보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무슬림인 그녀는 웨스트파푸아 지역 주민 대부분이 기독교인임에도 공동체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차이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며 “5·18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웨스트파푸아도 5·18을 본보기 삼아 분리독립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청년이 주도한 5·18의 가치 라오스 젊은이들에 알리겠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입니다.”  
“2015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인 라오스 ‘농촌민들의 아버지’ 솜바스 솜폰(63·Sombath Somphone)의 아내 수이 멩(여·60·Shui Meng·사진)은 지난 18일 5·18 가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2년 경찰에 의해 실종된 남편을 대신해 특별상 시상식에 참석한 그녀는 2008년 6월 남편과 함께 광주에 온 기억을 떠올린 뒤 “광주에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니, 민주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는 당시 조선대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시아청소년포럼’ 참석차 광주를 방문,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그는 “남편이 광주에서 돌아온 뒤 라오스 청년들에게 민주화의 가치에 설명하면서 5·18을 사례로 든 적이 있는데, 당시 남

편은 젊은이들이 주도한 5·18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했다”며 “민주화는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 없이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실종된 이후 농촌 빈민구제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남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돌아온다면 자신이 해오던 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솜바스 솜폰은 미국에서 농업석사학위를 받은 뒤 자국으로 돌아와 참여개발훈련센터를 설립해 유기질 비료도입·쓰레기 재활용·친환경농업기술 및 영세기업 발전 등 농촌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해왔다. 그녀는 농촌 빈민활동을 하면서도 남편의 실종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는 “최근 라오스 정부가 외국자본을 투자해 광산·댐 등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자본과 지역민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남편도 이때 지역민들 편에서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게 된 계기는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라오스 젊은이들도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라오스에선 반정부 인사들이 실종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5·18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화도 그만큼 더뎠을 것이다. 라오스 젊은이들이 광주의 5·18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광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 인권유린 피해자·정치범 무료 변론

**파푸아민주연대**  
인도네시아 분쟁지역으로 알려진 웨스트파푸아 지역 인권단체 파푸아민주연대(ALDP·Democratic Alliance for Papua)는 지난 2000년 설립됐다.  
라피파 아눔 시레가르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자아푸라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ALDP는 파푸아 지역 인권유린 피해자들과 정치범들에게 무료 변론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시레가르는 1990년 샌드라위시 대학 법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인권 변호활동을 해왔는데 ALDP는 설립된 뒤 시레가르의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지원해왔다. ALDP는 법률 구조 활동의 범위를 메라우케부터 소롱까지 육로로는 갈 수 없는 시골지역으로 확대했다. ALDP는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 지역의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파푸아 평화네트워크-자링간 다마리 파푸아(JDP)라는 운동을 주관했다. 이 운동은 평화적이

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파푸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었다.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는 공공 집회(포럼)가 잇따라 열려 다양한 시민단체와 각 종의 시민들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ALDP의 지원 아래 시레가르는 지난 해부터 반역죄로 기소된 파푸아 부족의 지도자 아레키 와니보(Areki Wanimo)의 변론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와니보 파푸아주 법정에서 열린 와니보의 재판 직후 시레가르가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ALDP는 파푸아의 인권 실태와 분리독립 운동에 관련한 영상과 연구 보고서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 농사법 개선해 빈민 구제 활동

**참여개발훈련센터**  
라오스의 ‘참여개발훈련센터’(PADE-TC·the Participatory Development Training Center)는 지난 1996년 솜바스 솜폰이 설립했다.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1978년 농업 석사학위를 받은 솜폰은 고향에 돌아와 농사법을 개선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단체를 만들었다. 라오스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 단체는 농업과 관련된 유일한 시민단체로

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과 지역 공무원을 훈련하는 활동을 한다.  
참여개발훈련센터는 유기질 비료도입·쓰레기 재활용·고효율 난방장치·신가공기법·친환경 농업 기술 등 ‘참여농업 평가기술’이라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도입했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소작농과 중소기업가 자원을 해치지 않고 효율을 높여 식량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뒀다. 참여개발훈련센터가 고안한 농업 기술은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등 청년 농업

인들에게 전수됐다. 청년 수강생들은 선진 농업 기법을 배우는 한편, 농약 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훈련을 받았다. 참여개발훈련센터는 인적 자원을 양성함으로써 농촌의 빈곤을 해결하고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지난 2007년, 솜폰은 라오스의 제3차 국제국민총행복회의 조직 위원을 맡았고, 2012년 제9차 아시아유럽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한편, ‘행복한 라오스(Happy Laos)’라는 영화의 자문을 맡았다. 이는 라오스에 국민총행복지수(GHN)가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김형호기자 khh@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